
네오아트센터
배승수
“Piona : Golden Circle”
2026. 10. 14. WED — 12. 06. SAT
OPENING
2026. 10. 14. WED 16:00
2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배승수

Bae Seung Su



2020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조소전공 석사 졸업

2015 충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및 단체전 /

2026 Piona : Golden Circle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6 Piona : into bloom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3 SomeTHing Vol.2 (IFC SEOUL, 서울)

2023 SomeTHing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22 The Shining (유나이티드 갤러리, 서울)

2022 unknown Vol.2 (아트마 갤러리, 서울)

2021 unknown (숲속갤러리, 청주)

2018 cloth : ER (숲속갤러리, 청주)

2017 한국기초조형학회 서울국제기획초대개인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NEO Art

차가운 금속에서 피어난 온기
절제된 화려함의 미학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

예술은 종종 물성(物性)을 배반하는 지점에서 묵직한 감동을 잉태한다. 조각가 배승수의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이 명제를 다시금 실감하곤 한다. 오는 14일, 네오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리는 배승수 초대전 〈 Piona : Golden Circle 〉은 그 극적인 배반의 미학이 가장 따뜻한 형태로 만개한 순간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작가와의 인연은 시간을 거슬러 2021년 11월, 청주 숲속갤러리로 향한다. 당시 갓 대학원을 졸업했던 청년 작가는 스스로를 "이유 없는 고철"이라 자책하며, 텅 비어있는 형상에 은빛 리본만을 묶어둔 'Unknown' 시리즈를 선보였다.

우연히 갤러리를 찾았던 나는 그 차가운 금속 리본을 마주한 순간 전혀 다른 상상력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선물'이자,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매듭'으로 다가왔다. 작가는 속이 비어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리본이 품고 있는 묵직한 '연결성'의 힘을 보았기에 주저 없이 작품을 구입하여 사무실 입구에 설치했다.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날 때면, 나는 그것이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언젠가 작가가 세상과 인연을 맺고 우리에게 건네줄 뜨거운 열정의 선물 상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신작들을 갤러리에 풀어놓으며 내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다름 아닌 '따뜻함'이었다. 수만 번의 망치질과 용접, 연마라는 고된 노동을 거쳐야만 탄생하는 차갑고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어떻게 이토록 부드러운 온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 굳게 묶여 있던 매듭을 풀고 구겨진 포장의 틈새로 생명력을 피워 올렸던 지난 전시를 지나, 이번 〈 Golden Circle 〉에서 작가는 그 피어난 생명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순환하는지를 유려하게 펼쳐낸다.

특히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수직으로 세 개의 원이 둥글게 연결된 도넛 형태의 조각은 이번 전시가 도달한 미학적 정점을 보여준다. 수많은 꽃잎이 빈틈없이 겹쳐지고 이어져 만들어낸 이 거대한 고리는, 차가운 금속으로 빚어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정교하고 부드럽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색의 운용이다.

작가는 꽃잎의 색상을 강렬한 원색으로 과장하지 않고, 차분한 화이트와 은은한 골드 톤으로 마감했다. 시선을 압도하는 장식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색채를 덜어냄으로써 묵직한 기품을 유지한다. 화려하지만 결코 과하지 않은, 이른바 '절제된 화려함'의 극치다. 이는 억눌렸던 에너지를 밖으로 터트리는 1차원적 발산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타인과 세상의 풍경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줄 아는 작가의 내적 성숙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물일 것이다.

내게 좋은 작품이란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관람객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내어주는 작품이다. 5년 전 나에게 '선물'과 '인연'의 상상력을 선사했던 배승수의 리본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의미가 한층 철학적으로 깊어졌다. 단순한 장식이나 개인적인 포장의 단계를 넘어, 신작에 등장하는 리본과 거대한 원(Circle)은 세상의 파편화되고 단절된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다정한 매듭으로 작용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수만 번 두드려 빚어낸 개별적인 꽃의 형상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질서, 즉 하나의 찬란한 원을 이루고 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원의 섭리처럼, 작가에게 '피어남(Piona)'은 멈춰 있는 명사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과정이자 동사(動詞)다.

단단한 강철을 두드려 매듭을 짓고, 다시 그 매듭을 풀어 생명의 궤적을 빚어내는 이 젊은 조각가의 땀방울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내면에도 아직 풀지 못한, 그러나 언제든 다시 연결되어 따뜻하게 피어날 단단한 꽃씨가 숨 쉬고 있지 않으냐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네오아트센터에서 배승수가 피워낸 '절제된 화려함'을 마주하길 권한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가가 묵묵히 다듬어 온 열정이, 단절된 마음 한구석을 다정하게 묶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가 될 것이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1. PIONA

400x250x700mm,
Stainless Steel, 2026



2. PIONA

500x550x2000mm,
Stainless Steel,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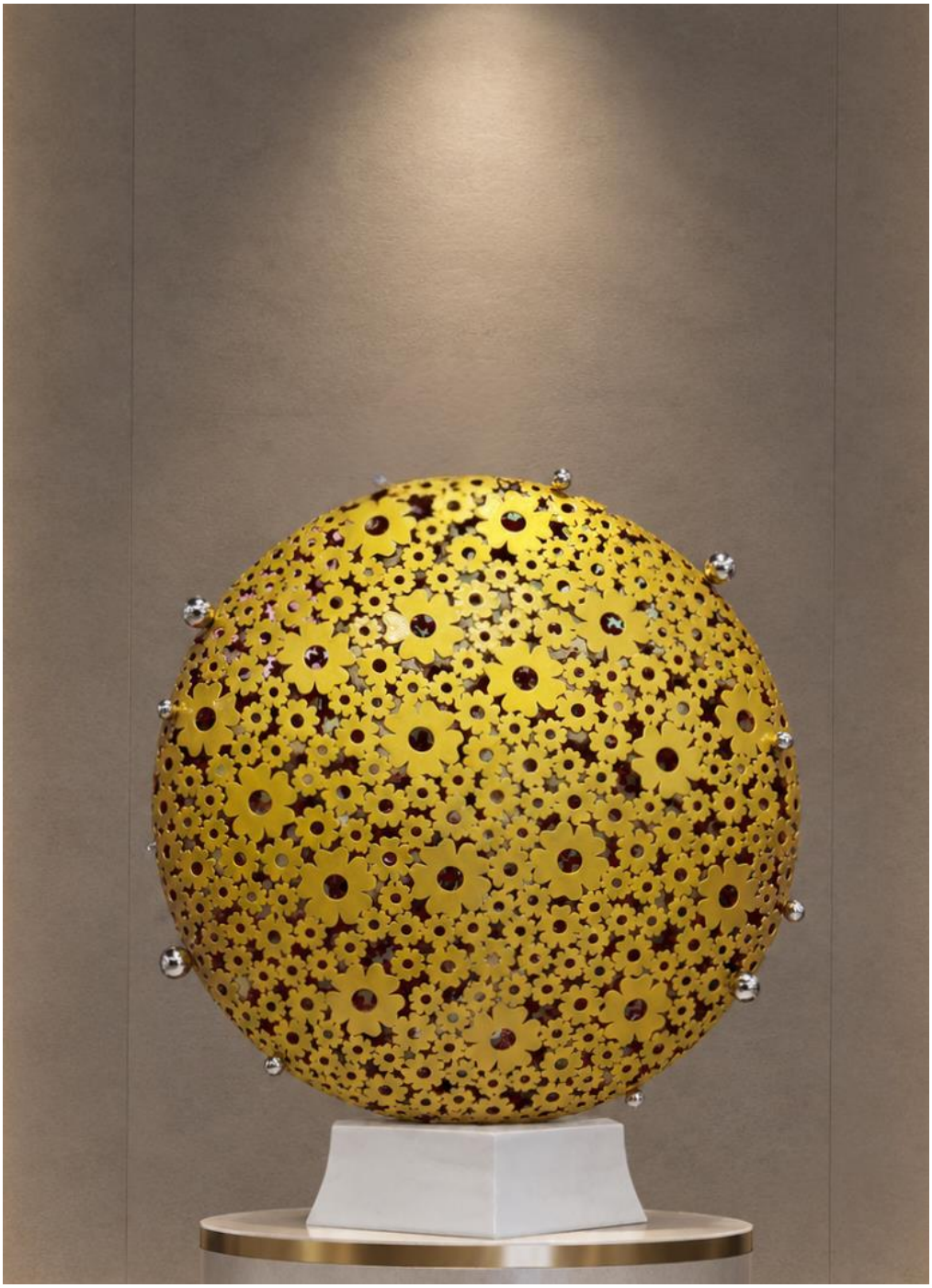
3. PIONA

600x650x2100mm,
Stainless Steel, 2026



4. PIONA

560x220x980mm,
Stainless Steel, 2026



7. PIONA

600x200x780mm,
Stainless Steel, 2026



8. PIONA

320x320x700mm,
Stainless Steel, 2026



10. PIONA

1300x940x2200mm,
Aluminium, 2026



11. PIONA

가변설치,
Stainless Steel, 2026